

제 15 차 아 시 아 산 업 보 건 학 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원종욱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되곤 하지만 이번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다른 때와는 조금 달랐다. 불행한 괄의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닻도 있었지만 비행기의 출발과 도착 시간이 우연히도 괄 사고 비행기와 비슷하다는 것도 조금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항에서 김돈균, 윤임중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몇 분의 사모님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최병수 전무 등 20여명이 만나 함께 떠나게 되었다. 학회에서는 따로 출발한 차봉석 교수님 등 몇 분을 더 만날 수 있었다.

8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면 아마도 기내식을 곧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점심을 늦게 먹고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는데 30여분이 지나서야 비행기가 이륙했다. 예상대로 기내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한참을 자고 나니 말레이시아 공항에 도착하고 있었다. 새벽 1시 30분. 공항 주변은 깜깜했고, 조금은 을씨년스러운 것이 아직 우리보다는 발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준비된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밤이어서 그렇겠지만 상당히 깨끗하고, 정돈이 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이드가 말레이 사람들은 머리를 손으로 만지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를 만지지 말라는 충고를 기억하면서 호텔에 도착한 것이 새벽 3시. 잠깐 눈을 붙이고 7시에 다시 일어나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옆 호텔의 학회장으로 향했다. 호텔의 시설은 우리 나라의 특급 호텔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숙박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크게 말레이 원주민, 중국계, 인도계의 3가지 인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치는 말레이 원주민이, 경제는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으며, 인도계는 하층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영어가 공용어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계가 영어를 잘하고, 인도계나 말레이 원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잘 못한다고 한다. 둘째 날 초등학교 수업이 저녁 6시경에 끝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몸집보다도 더 큰 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나왔고, 부모들이 마중 나오거나 학교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중국계가 다니는 학교로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앞으로도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사회를 중국계가 계속해서 장악하고, 상류층을 이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아시아 산업보건학회는 '향후 10년간 필요로 하는 산업보건과 안전에 대한 준비'라는 주제를 갖고 개최되어 21개국에서 약 3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포스터를 포함하여 100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우리 나라도 6개의 연제를 발표하였다. 일본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였고, 많은 연제를 발표하였다. 둘째 날 환영 만찬에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한 젊은 학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일본인이 수상하여,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다. 일본은 아시아 산업보건학회를 우리 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아대 김준연 교수가 용접공에서 만성 망간 폭로로 인한 파킨슨 증후군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였고, 연세대 차봉석 교수는 간에서의 DMF의 대사 물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가톨릭대학 임현우 선생은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의 진폐증에 관한 연구, 부산대 이철호 선생이 TDI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학회의 전반적인 발표 내용은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당히 발전된 것도 있었지만 조금 부족한 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필자로서는 이번 학회에서 세계 노동기구가 주도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WISE (Work Improvement in Small Enterprises)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점은 영세사업장에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가운데 1명을 선발하여 훈련시킨 후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발표된 개선 사례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연상케 할만큼 낙후한 것이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국고지원 사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의 대가이신 Jeyaratnam 교수와 내가 발표한 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회 기간 중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장 학자들이 따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50세 미만인 사람만 참가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 노재훈 교수님을 비롯하여 1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은 산업의과대학의 Higashi 교수 외 6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였고, 노재훈 교수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국제 생물학적 모니터링 심포지엄에 대한 홍보, Higashi 교수는 역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Medinfo '98에 대한 홍보와 많은

참석을 부탁하였다. 또한 양국에서 개최되는 여러 학회에 상호 방문을 적극 주선하기로 하였다.

쿠알라룸푸르 시내에는 새로 발전하는 신흥도시답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대부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였지만 도로 여건들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특히 시내의 교통 질서는 우리나라 보다도 더 어지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최근 TV에서 본 것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은 그런 곳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가 끝나고 사바주의 키나바루에 여행을 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산불로 인한 연기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매우 맑고 깨끗한 곳이었다. 동남아의 킬리만자로라는 해발 4100m의 키나바루 산 아래에 있는 공원은 열대 우림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고, 김돈균 교수님과 이수일 교수님은 이 산을 등반하셨다. 다음날 호텔 인근의 조그만 섬인 사피 섬에서 해수욕을 즐겼는데, 호수같이 맑고 깨끗한 물에 이름도 모르는 열대어 수 백 마리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몰려들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다. 또한 산에서는 침팬지들이 내려와 일행의 짐을 뒤져서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바다 바닥에 보이는 산호초는 보는 이에게 황홀함을 더해 주었다. 더욱이 이곳은 아직 항공편이 불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아 조용히 휴식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으로 보였다.

해외 학회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아이러니일지는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서로의 일이 바쁜 관계로 오히려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학회기간을 통해서 순천향대학의 김주자 선생님, 가톨릭 대학의 임현우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큰 보람이 되었다.

우리는 여름에 떠났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가을이 되었다.